

선거 연구와 패널여론조사 :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김 장 수*

논문요약

동아시아연구원은 중앙일보, SBS, 한국리서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31 지방선거에 패널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민심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패널여론조사는 개별 투표 결정요인의 역동성은 물론 요인 간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일반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간주된다. 지역 패널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충남의 4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1차 패널 각 800명으로 출발하여 4차 조사 패널 유지율 70% 상회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요인 간의 인과관계, 선거 운동의 영향력, 부동산 등 선거 연구의 핵심 쟁점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대표성 문제, 지역감정의 지수 개발 등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논문은 선거 연구의 핵심적 쟁점에 대한 논의와 이와 관련하여 일반여론조사의 대안으로 부상한 패널조사 기법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이의 구체적인 사례로 5·31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기획과정과 결과를 보고한다.

I. 서론: 왜 패널 조사인가?

대의제 민주주의는 작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선거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핵심 쟁점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작동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선거 연구의 전통에서는 유권자의 합리성 문제로 등치되어 왔다. 이러한 등치는 다음의 세가지 이론적 함의를 배경으로 한다. 첫째, 대의제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선호, 특히 선거를 통해 나타난 선호 즉 민심(electoral mandate)에 반응적이어야 한다는 규범적 차원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에서의 합의이다.

둘째, 민심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기제는 선출된 공직자들의 행동 동기(incentive)이다. 다운스(Anthony Downs 1957)에 의해 수립된 합리적 정책결정자로서 정치가를 분석하는 전통에 따르면 선출된 정책결정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모든 행위의 동기는 선거에서의 승리이다. "오로지 재선에만 정신이 팔린 자(single-minded reelection seeker)"(Mayhew 1974)로 규정되는 정치가들은 다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또는 승리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책에 반영한다.

이상의 두 가지 합의에 근거하여 유권자의 합리성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작동을 가름하는 궁극적 변수라는 세 번째 합의가 성립된다. 즉 재선에만 정신이 팔린 정치가들을 어떻게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의에 반응하게 할 것인가? 이는 유권자가 정책결정자의 업적과 성취에 근거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투표할 경우에 가능하다. 요약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투표행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권자는 합리적인가의 질문은 선거 연구의 중심적 질문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선거 연구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합의는 유권자의 합리성에 대한 개념 규정이다. 유권자가 경쟁하는 정당의 업적과 성취에 근거하여 투표한다면, 다른 말로, 본래의 정치적 성향 혹은 정당 일체감이나 지역감정과 같은 특정 선거의 정치적 현실에 선행하는 심리적 요인이 아닌 개인의 효용과 공공선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쟁하는 정당들의 성취의 결과인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 또는 이의 예측과 관련된 정당과 후보들의 이념적 좌표 등이 중요한 투표 결정요인(voting determinant)이라면 이는 합리적인 투표이다(Berelson, Lazarsfeld, and McPhee 1954; Anthony Downs 1957; V. O. Key 1966). 미시적 차원의 투표결정요인에 거시적 차원에서는 선거결과가 어떤 요인에 반응적인가의 문제로 대체되어 왔다(Norpoth 1987; MacKuen, et al. 1989, 1998; Green et al. 1998; Meffert et al. 2001).

이러한 중요한 쟁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핵심 변수인 투표결정요인, 즉 유권자는 무엇으로 투표하는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판과 반비판, 논쟁과 불일치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논쟁이 쉽게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심리학적 방법론에 근거한 선거 연구의 주류적 시각은 18세 이전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정당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이 가장 중요한 투표결정요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감정에 근거한 투표 행태가 이러한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반면, 다운스(Anthony Downs 1957)와 키(V. O. Key 1966)로 대표되는 합리적인 혹은 반응적인 유권자관점은 선거결과와 객관적인 정치적 상황에 반응성에 주목한다. 다운스의 전망적 투표 이론(prospective voting)에 따르면, 유권자는 향후 자신에게 많은 효용을 가져다 줄 정당에 투표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키의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이론은 유권자가 집권당의 업적과 성취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투표를 한다고 주장한다.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에 대한 쟁점은 일견 쉽게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논쟁의 핵심에는 각 학파가 주장하는 핵심적 투표결정요인 간의 인과관계가 놓여 있다. 우리나라 선거를 예로 들면, 호남 유권자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하면서 그 당과 후보의 업적과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경우에 이 유권자의 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이 지역감정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업적과 정책이라는 합리적 투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인지가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일한 현상이 정당일체감과 업적과 성취에 대한 판단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즉 민주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는 민주당의 업적과 성취에 대해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민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투표결정요인에 대한 논쟁이 이러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즉 궁극적 결정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1960년대 중반 이후 논쟁은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은 정당일체감이 정당의 기존의 업적과 성취에 대한 축적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오리나(Fiorina 1981)에 이르면 한층 복잡해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명확해진다. 즉 쟁점은 각 학파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투표 결정요인 간의 상관관계 또는 투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풀릴 수 없고 요인 간의 인과관계에 천착한 검증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주류학파가 주장하듯이, 정당일체감이 궁극적 결정요인이라면, 업적과 정책에 대한 판단 등 합리적 요인들이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 키나 피오리나가 주장하듯 그 역의 관계가 중요한지에 대한 실증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투표결정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이 강조되면서 패널조사가 그 방법론상의 대안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에서 선거와 관련한 최초의 전국적인 패널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이 1980년 미국 전국선거조사(National Election Studies, NES) Major Panel Study로 집약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방법론에 근거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론과 분석이 여전히 적지 않게 나타난다. 여전히 적지 않은 여론 조사에서 “사회적으로 정답”이라고 간주될 만한 항목을 선택한 경우를 유권자의 태도라고 무비판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 후보의 선택 기준에 대한 질문에서 이미지나 소속 정당보다는 정책을 보고 후보를 선택했다는 응답을 그대로 보고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중앙일보, SBS, 한국리서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3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 의향의 변화를 패널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의 중점은 기존에 축적된 선거와 여론조사 이론과 분석틀에 근거한 과학적 조사에 두어졌다. 특히 분석하고자 한 핵심쟁점은 위에서 논의한 투표결정요인 간의 역동적 관계와 선거운동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또한 서구에서 발전된 이론 틀을 적용하지만 한국 선거의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 선거 연구에서 방법론적 대안으로 패널 조사가 대두하게 된 배경을 주류와 수정주의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3장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의 지방선거 패널 조사를 기획과 실제 조사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보고한다. 4장은 결론을 대신하여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II. 선거 연구의 쟁점과 미국의 패널 조사¹⁾

서론에서 논의한 선거 연구의 핵심 쟁점은 결국 심리학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미시간 학자들이 궁극적 투표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과 다른 투표결정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집약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입하면 지역 감정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심리적 태도가 집권당의 업적과 성취, 경제상황, 정당들의 후보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맺는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쟁점이 되고 있다.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 연구에서 접하고 있는 핵심적 지위에 부합되게 선거운동의 역할과 관련된 제반논의도 정당일체감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Niemi & Weisberg 1993; Green et al., 1998). 이러한 전통은 선거에 대한 현대적 분석의 효시로 거론되는 콜롬비아 학자들의 1940년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고전적 연구(1944; 1954)들로부터 수립되어 1960년대 미시간 학파로 대변되는 선거 연구의 주류적 시각으로 확립된다. 심리적 선행요인에 중점을 두는 주류적 시각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 즉 합리적인(rational) 또는 반응적인(responsible, responsive) 유권자 관점은 다운스(Anthony Downs 1957)와 키(V. O. Key 1966)에 의해 그 이론적 기초가 수립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이러한 관점은 선거 연구에서의 수정주의적 시각으로 통칭된다.

1. 콜롬비아 학파와 최초의 패널 조사

콜롬비아 학파는 근대적 선거연구의 효시로 간주된다는 점 외에도 최초로 선거에 패널 조사를 적용하여 유권자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발자취를 남겼다. 1940

1) 학파들의 명칭과 분류는 Niemi와 Weisberg의 1993년 저작을 기본으로 하고 Charles Franklin의 1992년 논문과 이후 Macropartisanship을 관한 논쟁들에 근거하고 있다.

년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들의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는 유권자들이 최종적 투표결정에 이르는 과정의 역동성과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역할이다. 이러한 패널 연구가 가능했던 역사적 배경으로는 유럽에서 전체주의의 등장과 라디오의 대중적 보급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전체주의의 등장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콜롬비아 학자들의 관심은 대중들의 태도가 어떻게,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이 과정에서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었다.

대중들 태도의 가변성과 이로 인한 여론조작의 가능성에 대한 애초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이들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선거운동이 대중들의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들에 따르면 선거 운동은 유권자로 하여금 본래의 정치적 성향과 대립되는 새로운 투표의사를 형성시키기(conversion) 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투표 의사를 공고화(reinforcement)하거나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니고 있던 정치적 성향을 활성화(activation)시키는 역할만을 한다. 많은 유권자가 선거 운동이 개시되기 전에는 투표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선거 운동의 주된 목적이 이러한 정보의 제공에 있다는 전체하에서, 선거 운동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유권자들이 본래의 정치적 성향들에 비해 미미한 역할만을 한다는 발견은 콜롬비아 학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은 집권당의 업적과 성취에 근거하여 투표하는 반응적 유권자에 의해 달성되는 데, 유권자가 맺고 있는 사회적 망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이 또한 기존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선택적으로 취득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할 수 없다(Berelson, Lazarsfeld, and McPhee 1954).

이후의 이론적 발전과 변화라는 측면과 관련되어 콜롬비아 학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개념 규정과 이의 수량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잠재적 정치적 성향을 수량화하기 위해 콜롬비아 학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와 주거(도시와 농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분석들은 사회학이라는 그들의 학문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지만 이러한 점에서 콜롬비아 학파는 이후 이들을 계승·포섭하였다는 심리학적 분석들에 근거한 미시간 학파와 구별된다. 콜롬비아 학자들의 연구를 집대성한 1954년 연구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연구가 미시간 학파의 심리학적 연구로 이어지는 교량의 구실을 한다. 선거연구의 주류적 관점을 언급할 때 이는 콜롬비아 학파를 계승-발전시킨 미시간 학파를 의미하지만 그 무게중심은 미시간 학파의 심리학적 접근에 있다.

2. 궁극적 투표 결정요인에 대한 논쟁

정당일체감을 여타 인지적 투표결정요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 원인으로 보는 미시

간 학파의 입장은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친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확립되었지만, 1960년에 출간된 *The American Voter*를 통해 집약된다. 이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보통 18세 이전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특정정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으로 정의된다. 이들과 수정주의자들 간의 쟁점은 정당일체감의 안정성과 이와 다른 인지적 투표결정요인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미시간 학파에 따르면 일단 형성된 정당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은 정당의 업적과 성취에 의해 변화하기 보다는 이러한 인지적 결정요인과 태도를 규정짓는다. 따라서 가장 안정적이고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시간 학파는 정당일체감을 가장 중요한 단일의 궁극적 투표결정요인이라 주장한다. 즉 정당일체감은 자신은 여타 인지적 결정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후자의 형성에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추동되지 않는 추동자(unmoved mover)로 정립된다(Green and Palmquist 1990).

추동되지 않는 추동자로서 정당일체감을 정립한 미시간 학파의 입장은 그 출발점부터 합리적 유권자관에 근거한 수정주의자들의 이론적, 실증적 도전에 직면한다. 합리적 유권자관을 대표하는 다운스의 분석틀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집권하면 높은 효용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전제된다. 그러나 이 미래의 효용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음으로 유권자는 집권당이 제공한 과거의 효용과 반대당이 집권하였다면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가상적 예상치를 비교한다. 두 정당간의 이 예상된 효용의 차이가 정당간 격차이다(party differential). 다운스의 전망적 투표이론에 의하면, 유권자는 집권당이 높은 효용을 제공한 것이라고 예상하면 재선임, 그 반대면 반대당에 투표를 할 것이고, 그 차이가 없다면 기권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 경제학적 모델에서 유권자의 특정정당에 대한 선호는 경제학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며 어떠한 심리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당연히 정당에 대한 선호는 집권당의 업적에 조용하여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운스가 합리적 정책결정이론을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의 작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면, 심리적 결정요인에 주안점을 두는 주류적 시각에 대한 정치학 내부에서의 실증적 자료를 활용한 본격적인 도전은 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1966년 *The Responsible Electorate*를 집필할 당시, 그의 주된 공격대상은 콜롬비아 학파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연결망에 의거한 투표행위의 결정론적 시각이었지만, 보다 심리적 요인에 강조점을 두는 미시간 학파도 그 공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유권자는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죄수와 같이 긴박(strait-jacketed)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의 충동(subconscious urge)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바보가 아니다. 그에 따르면, 유권자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집권당의 업적과 성취에 반응하는 존재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그는 집권당의 성취에 대한 지난 4년간의 평가에 따라 유권자는 같은 정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만약 평가가 부정적이면 이를 징벌하기 위해 야당에 투표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주류적 시각과 합리적 혹은 반응적 유권자관 간의 논쟁은 이후 1970와 80년대에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1981년 모리스 피오리나(Morris Fiorina)의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의 출간은 추동되지 않는 추동자로서 정당일체감을 파악하는 주류적 시각의 주요한 이론적 근거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피오리나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정당들의 과거 업적에 관한 요약된 평가(summary judgement)이기 때문이고, 이 요약된 평가로써의 정당일체감은 여타 인지적 결정요인에 영향을 받아 부단 이(running) 재조정되는 성적표(tally) 같은 것이다.

3. 논쟁과 1980년 NES 패널조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선거연구에서의 주류와 수정주의자 간의 논쟁은 정당일체감의 역할과 위상정립 문제, 즉 집권당의 업적과 성취와 같은 인지적 요인들과 정당일체감의 인과관계로 쟁점으로 귀착된다. 피오리나의 설명에 의하면 정당일체감의 가시적 중요성은 이것이 다른 합리적 투표결정요인들의 총합이라는 사실의 단순한 반영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미시간 학파의 반론은 인간의 인식이 수정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된다. 유권자의 투표의사는 이들이 정치적인 대상에 대한 인식의 결과물인데 이 인식 자체가 정당일체감과 같이 이미 형성된 심리적인 호·불호에 의해 편향되고 왜곡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표결정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해 출발한 논쟁이 인간의 인지과정이 어떠한가에 대한 논쟁으로 전개된다. 수정주의자들은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반영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반면 인지의 객관성보다는 선행하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편향 가능성을 강조하는 주류학파에 의해 선거 연구에서 인지과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인지과학에서의 최근의 발견들, 구체적으로, 선행하는 정치적 성향들(political priors)에 의한 인식의 양극화현상들(perceptual polarization)도 주류적 시각을 뒷받침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가 특정 쟁점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쟁점에 대해 새롭게 제공되는 정보는 기존의 선호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수용되어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선호의 변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여한다.

요약하면, 유권자의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선행적 선호가 새로운 정보의 취득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귀결되는 태도는 새로이 제공된 정보의 내용보다도 그의 선행적 태도에 의해 기본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정보가 민주당 일체자들과 공화당 일체자들에게 제공되어도 전자의 귀결되는 태도가 후자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보다 일반적인 경우는 동일한 정보 하에서도 양당의 일체자들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양극화로 귀결된다

(Lord et al. 1979; Lau 1982; Lodge and Hamill 1986; Conover and Feldman 1989; Dalton et al. 1998; Taber and Lodge 1999). 이러한 논의를 우리나라 선거에 대입하면, 예를 들어 김대중 후보의 성취나 정책에 대한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어도, 김대중 대통령을 선호하던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는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정보는 걸러냄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을 더 선호하는 반면, 그를 싫어한 사람들은 정반대의 과정을 거쳐 정반대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주류학파의 예측이다.

주류와 수정주의 간의 쟁점이 정당일체감이 다른 인지적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피오리나가 주장하듯이 그 역의 관계가 보편적인가로 귀결되면서 격년으로 실시되던 미국 전국 선거조사는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널조사기법을 활용하기도 결정한다. 이 결과물이 1980년 NES Major Panel Study이다 (이를 활용한 연구는 Markus 1982; Finkel 1993 참조).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1940년대 콜롬비아 학자들의 방법론과 분석틀을 원용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나타난다. 첫째, 콜롬비아 학파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강조에서 미시간 학파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강조를 반영하여 정당일체감과 여타 요인간의 관계를 그 분석의 중점에 두고 구성된다. 둘째, 40년대 연구가 한 주의 특정 지역에 국한된 반면, 80년 NES는 전국을 대상으로 외연을 확대하면서 그간의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축적된 발견들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

Ⅲ. 5·31 지방선거 패널 조사

1. 5·31 패널 조사의 기본 원칙과 취지

동아시아연구원의 5·31 지방선거에 대한 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의 1980년 NES Major Panel Study를 원용하여 구성되었다. 첫째, 패널 조사의 경험이 있는 영국과 캐나다 보다는 대통령제의 미국이 우리나라의 선거와 제도적 유사성이 높다. 둘째, 1980년 NES 패널 조사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연구원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도 핵심적 투표결정요인들의 역동성과 이들 간의 관계 및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역할에 두어졌다. 셋째, 미국 NES의 경우 195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중반의 패널조사는 단일 선거 기간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아서 단일 선거 내의 역동성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동아시아연구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배제되었다.

일반여론조사 대신 패널조사를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패널 조사의 강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선거 연구에서 패널조사는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시차를 두고 반복하여 조사함으로써 구체적인 여론의 변화는 물론 이의 주도층과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이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기법으로는 시계열분석이 있다. 시계열 분석은 다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일반여론조사를 한데 모아서 마치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취급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즉, 각기 다른 응답자들에 대한 조사로부터 설령 전체적인 변화추세를 발견한다고 하여도 실제로 여론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여론은 변함이 없는데 단순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점이 시계열분석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변화의 주도세력과 그 원인에 대한 결론도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럴듯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패널조사는 시계열분석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과학적 대안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실제 여론이 변화하고 있는지, 누가 변화의 주도세력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패널조사는 현재의 여론에 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이해는 물론 이에 기반하여 향후 여론의 추세에 대해서도 훨씬 풍부한 전망을 가능케 한다.

2. 패널 조사의 난점과 컨소시엄 구축

이상의 패널조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대로 된 패널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것은 일반여론조사에 비해 여러 번의 조사시점에 걸쳐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일정한 응답율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유권자 분포를 반영하는 표본의 대표성을 동시에 지속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즉 패널 이탈율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초기 패널을 구축해야 할 뿐 아니라 여러 차례의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 패널조사의 단점이다. (패널조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치밀한 조사 디자인 및 세심한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더구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대규모 패널을 유지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기술적 차원의 관리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1930년대 선거여론조사가 본격화된 이후 선거연구의 경험이 많은 미국에서조차 전국단위 패널조사의 경험은 11980년과 2000년 두 번에 불과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패널조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을 꼽을 정도이다.

따라서 한국의 여론조사 연구 풍토를 고려할 때, 어느 일개 기관이 비용, 연구디자인 설계, 패널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SBS · 중앙일보 ·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국내 최초의 전국단위 5·31을 지방선거 패널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미 2005년 9월부터 동아시아연구원, 한국리서치, SBS와 중앙일보는 공동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2005년 12월 SBS의 참여확정

을 끝으로 네 개 기관 공동 컨소시엄 구축이 완료되었다.

SBS의 현경보 차장(여론조사 전문위원), 중앙일보 신창운(여론조사 전문위원) 및 동아시아 연구원(원장: 김병국 고려대 교수)의 지방선거패널연구팀(팀장: 이내영 EAI 소장, 고려대 교수), 한국리서치 패널조사 전담팀(팀장: 김춘석 부장)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패널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보다 심층적인 조사문항 구성을 위해 유권자의 선호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서 4월 19~20일 열린우리당 지지층, 한나라당 지지층, 무당파층을 각각 20~30대, 40~50대로 구분하여 총 6개 집단에 대한 FGD(Focus Group Discussion)을 실시하여 설문지에 반영했다.

3. 준비과정과 조사 방법 및 주제

5·31 지방선거 패널 조사는 2005년 9월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별도의 기획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중앙일보와 SBS의 컨소시엄 참여가 확정되면서 시작된다. 2006년 1월 동아시아연구원 패널연구팀이 확정되면서 향후 계획 확정 및 역할 분담을 완료하면서 본격화되어 이후 결과 분석까지 포함하여 12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방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를 조사의 단위로 설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쟁점은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몇회에 걸쳐 조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1)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중 한 지역을 선정하되, 2)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하고 여론변동 가능성이 높아 패널조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3) 2007년 대선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큰 지역을 선별한다는 원칙 하에 서울, 부산, 광주, 충남을 선정하였다. 이 4개 지역별 각각 최종 600명의 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차 패널을 800명으로 정하고 선거 후 조사까지 총 4회의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1,300명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전국패널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 항목은 선거 연구의 쟁점과 패널 조사의 목적과 부합되게 핵심적 투표결정요인의 역동성과 이들 간의 관계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다음의 6개의 세부 주제로 구분하고 단기적 선거 쟁점에 대해서는 매 시기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1) 지역별 지지율 변화 추이 및 변화요인 추적·선거결과 예측
- 2) 부동층 및 이탈투표(지지후보 교체 및 기권) 분석
- 3) 유권자 투표결정요인(지역·정당일체감·이슈 및 이념·후보·동원·정치적 분위기)
- 4) 투표 및 기권요인 분석
- 5) 매스컴 및 선거운동 효과 분석
- 6) 투표결과와 향후 정국 전망

패널 유지율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세부주제와 항목은 별첨자료 참조)

<표 1. 패널 유지율>

	1차 (4.29)	2차 (5.19)	3차 (5.26)	4차 (6. 2)	1-2유지 (%)	1-3유지 (%)	1-4유지 (%)	
조사표본	서울	818명	670명	646명	626명	82	79	77
	부산	773명	667명	631명	614명	86	82	79
	광주	784명	648명	630명	614명	83	80	78
	충남	793명	621명	602명	583명	78	76	74
	합계	3,168	2,606	2,509	2,437	82	79	77

4. 학문적 의의와 결과 요약

5·31 지방선거 패널 조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선거 연구의 핵심 쟁점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한국 선거 연구의 이론화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각기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별개의 여론 조사 결과를 마치 동일한 유권자에 대한 반복적 질문을 행한 결과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기존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패널 조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별개의 여론조사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여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시기에 행해진 별개의 여론 조사 간의 차이점도 변화라고 주장하는 우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유권자 민심이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밝히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패널 조사는 최소한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여론조사보다는 우위에 있는 기법이다.

투표결정요인에 대한 논쟁이 보여주듯이 다양한 유권자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자신의 투표 의사를 결정한다. 개별 유권자의 경우에도 매 선거마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고민하지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넘을 수 없다. 즉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면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의 단일의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이 과정에 이르는 유권자 간 차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단 한명의 유권자의 선택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 축적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선거 연구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권자 결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감안하면 몇 가지 단순한 질문으로 유권자 선택의 이유를 읽어내려는 작업의 무모함이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학파는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유권자가 밝힌 투표 의사보다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그의 최종적 투표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선택에는 일정한 법칙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과학적 선거 연구의 전제이다. 따라서 선거 연구는 이러한 법칙성을 규명하려는 집합적 노력이다.

유권자의 투표 성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유권자도 모르는 법칙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유권자에게 “왜 그 후보를 선택하셨습니까?”를 묻고 그로부터 그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유권자가 자신의 진실을 밝히는 경우에도 그 의미와 동시에 한계도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 여론 조사의 경우, 문항수의 제한이라는 근본적 한계로 인해 민심의 형성 요인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번 패널 조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여론조사 보다 많은 문항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핵심적 변수로 논의되어 온 대부분의 항목들을 포함함으로써 투표결정요인의 다이내믹스는 물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경제적 상황,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인지적 투표결정요인과 함께 정당에 대한 태도를 반복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태도와 인지적 결정요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패널조사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핵심적 쟁점 중의 하나이면서 일반조사에서는 불가능한 부동층에 대한 연구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의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선거에 국한하면, 한국의 유권자는 선거 연구의 주류학과인 미시간 학자들의 주장하는 정당일체감의 활성화로 인한 투표 결과의 양극화 행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따르면 유권자는 정당일체감을 준거로 인지적 투표결정요인을 양극화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될수록 자신이 일체감을 지니는 정당에 대한 지지로 선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 및 지지하는 정당 항목에서 자신들을 선택한 유권자의 지지를 선거운동이 진행될수록 잃어간 것으로 나타난다. <표 2>는 1차 조사 기간 밝힌 지지 하는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정당 지지자 중 서울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율(%)

	1차 (4월 19일)	2차 (5월 19일)	3차 (5월 26일)
열린우리당 지지자 중 강금실 후보 지지율	66.5	63.7	57.5
한나라당 지지자 중 오세훈 후보 지지율	85.1	90.7	92.9

선거 운동이 진행될수록 自黨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증가한다는 활성화 가설과 달리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선거가 진행될수록 증가하지 않는다. 1차 시기 정당 지지율에서 24 對 40으로 한나라당에 상당히 뒤쳐

고 이들에만 국한한 자당 후보 지지율이 66.5%에 불과해 이미 상당히 높은 충성율을 보이는 한나라당에 비해 증가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으나마 감소하였다는 점은 기존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 한국 선거의 특징을 보여주는 특이한 현상으로 치밀한 분석을 요한다.

이번 패널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선거 연구에서 정치이념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외국의 경우 자기인식적 정치이념은 정당일체감과 함께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다른 인지적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궁극적 원인인자로 밝혀졌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이념을 다루어왔다. 이번 패널조사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응답자의 정치이념에 대한 자기인식이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이번 패널조사에서는 정치이념의 안정성과 다른 요인들과의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1차 조사부터 4차 조사까지 응답자의 이념성향을 매우 진보(1), 중도(3), 매우 보수(5)까지 5가지 선택을 주고 반복적으로 측정하였다. 시기별 상관지수는 일주일의 간격으로 진행된 3-4차 시기의 .68이 가장 높고 여타 시기는 .52에서 .62 중간에 분포해 있다. 정치이념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자기 인식적 정치이념의 변화

1차 조사 (4월 19일)	4차 조사 (6월 2일)					
	매우 진보	약간 진보	중도	약간 보수	매우 보수	합계
매우 진보	10	15	4	4	4	37
약간 진보	13	169	36	23	1	233
중도	4	42	54	32	4	136
약간 보수	1	22	31	114	12	180
매우 보수	0	2	1	11	12	26
합계	28	241	126	184	33	612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2달이 채 안되는 기간에 스스로 인식하는 정치이념에 대한 응답이 상당히 큰 유동성을 보여준다.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어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7개항 측정치보다 적은 5개항 측정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조사에서 1차조사와 동일하게 응답한 비율은 60%에 불과하여 상당히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진보에서 중도나 보수, 또는 그 역의 경우로 변경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정치이념이 원인인자의 가능성과 함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등에 영향을 받는 단기적 변수가 아닌가하는 역의 가능성이 나타났다. 패널 결과를 분석하면 유사한 맥락에서 학계에서 기존에 제기해 왔던

여론조사에 나타난 유권자 응답의 진실성 정도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표는 동시에 일반여론조사의 시계열 분석과 차별되는 패널 조사의 장점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위의 결과를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수와 진보 비율의 변화에만 국한하여 분석하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시계열 분석은 거시적 차원의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거시적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수면 하에서 진행되는 개인적 차원의 활발한 변화를 간과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대선 후보 선호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전국패널 조사도 동일한 현상을 보여준다. 1차조사(5월 11일)과 2차조사(6월 5일) 기간에 고건, 박근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26->27, 22->24, 22->22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별 지지 후보의 변화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0%가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변경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지지 계층에서 고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역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고건으로부터 두 명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쏠리는 방향성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IV. 결론: 조사의 한계와 극복 방안

이상에서 논의한 패널조사의 장점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패널 조사는 다음의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가장 중요하게는 패널의 대표성 문제이다. 즉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모집단의 일반적 분포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나타나지만 패널 조사에서는 그 편향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편향의 심화는 사실 패널 조사의 강점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많은 문항에 대한 반복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패널조사는 상대적으로 정치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많은 층이 과대 대표되는 정도가 심해진다.

패널의 대표성과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약점은 패널 이탈의 문제이다. 1차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들을 마지막 조사까지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탈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이탈자 구성에서도 편향의 정도가 적은 것이 차선인데, 이번 조사의 경우에도 저학력, 저소득층의 이탈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표성의 훼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1-4차 유지율이 70%를 상회하여 다른 패널 조사에 비하면 이탈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투표참여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실제 투표율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표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1차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응답자를 최대한 접촉하여 유지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그 효력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질문 항목과 관련해서는 정당과 관련해서는 가장 좋아하는 정당, 싫어하는 정당과 함께 각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를 묻는 별도의 질문도 포함하여 다양한 측정치 개발을 가능케 한 반면 우리나라 선거의 핵심 변수 중의 하나인 지역감정 지수를 개발하지 못해 포함시키지 못한 문제가 가장 크게 두드러진다. 선거 연구의 쟁점이 심리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 간의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핵심적인 심리적 요인인 지역감정을 측정하는 지수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지방 선거의 특성에 기인하는 한계로, 각 조사 시점간의 간격이 너무 짧고 여러 층위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어 질문지 구성이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패널 조사가 일반여론조사의 약점을 극복하는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모든 여론조사가 공유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실험과 기법들이 병행되는 반면 우리의 경우 여전히 선거 연구의 경우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 이번 조사의 경우에도 준비 단계에서 포커그룹 연구를 진행한 정도에 그쳤다. 특히 부동산과 이탈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케 하는 방법들도 병행하며 좀 더 풍부한 분석 결과를 창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N.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ody, Richard A., and Lawrence S. Rothenberg. 1988. "The Instability of Partisanship: An Analysis of the 1980 Presidential Elec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8:445-465.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Stokes, eds. 1966. *Elections and the Political Order*. New York: Wiley.
- Campbell, Angus, Gerald Gurin, and Warren E. Miller. 1954. *The Voter Decides*. Evanston, Ill.: Row Peterson.
- Conover, Pamela Johnson, and Stanley Feldman. 1989. "Candidate Perception in an Ambiguous World: Campaigns, Cues, and Inference Process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912-940.
-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Ideology and Discontent*, ed. David E. Apter. London: Collier-Macmillan Ltd.: The Free Press of Glencoe.
- Converse, Philip E., and Gregory B. Markus. 1979. "Plus ca Change...: The New CPS election Study Pane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32-49.
- Dalton, Russell J., Paul A. Beck, Robert Huckfeldt. 1998. "Partisan Cues and Media: Information Flows in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111-126.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Finkel, Steven E. 1993. "Reexamining the Minimal Effects Model in Recent Presidential Campaigns." *The Journal of Politics*, 55:1-21.
- Fiorina, Mo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ranklin, Charles. 1992. Measurement and the Dynamics of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14:297-309.

- Green, Donald Philip and Bradley Palmquist. 1990. Of Artifacts and Partisan In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872-902
- Green, Donald Philip, Bradley Palmquist, and Eric Schickler. 1998. "Macropartisanship: A Replication and Critiqu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883-899.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April 23-25, 1998.
- Huckfeldt, Robert, and John Sprague. 1987. "Networks in Context: The Social Flow of Political Inform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1197-1216.
- Key, V. 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Rationality in Presidential Voting, 1936-196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azarsfeld, Paul F.,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t. 1944. *The People's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odge, Milton, and Ruth Hamill. 1986. "A Partisan Schema for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505-520.
- Lodge, Milton, and Charles S. Taber. Forthcoming. "Three Steps Toward a Theory of Motivated Reasoning." In *Elements of Political Reason: Understanding and Expanding the Limits of Rationality*, eds. Arthur Lupia, Mathew D. McCubbins, and Samuel L. Popk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rd, Charles G., Lee Loss, and Mark R. Lepper. 1979. "Biased Assimil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Prior Theories on Subsequently Considered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2098-2109.
- MacKuen, Michael B., Robert S. Erickson, and James A. Stimson. 1989. "Macropartisanship."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1125-1142.
- MacKuen, Michael B., Robert S. Erickson, and James A. Stimson. 1998. "What Moves Macropartisanship. A Response to Green, Palmquist, and Schickl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901-912.
- Markus, Gregory B., and Philip E. Converse. 1979. "A Dynamic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f Electoral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 1055-1072.
- Markus, Gregory B. 1982. "Political Attitude during an Election Year: A Report on the 1980 NES Panel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538-560.
- Meffert, Micheal F., Helmut Norpoth, and Anirudh S. Ruhil. 2001. "Realignment and Macropartisanship."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953-962.
- Niemi, Richard G., and Herbert F. Weisberg. 1993. *Controversies in Voting Behavior*.

Washington, D.C.: CQ Press.

- Norpoth, Helmut, and Milton Lodge. 1985. "The Differences between Attitudes and Nonattitudes in the Mass Public: Just Measure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291-307.
- Taber, Charles S., and Milton Lodge. 1999.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Vallone, Robert, Lee Ross, and Mark Lepper. 1981.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a Presidential Election*.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eisberg, Herbert F. 1980.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2:33-60.
- Weisberg, Herbert F. 1983. "A New Scale of Partisanship." *Political Behavior*, 5: 363-377.
- Zaller, John.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별첨 자료:조사별 세부주제 및 항목>

주제	질 문 내 용	1차 조 사	2차 조 사	3차 조 사	4차 조 사
후보/정당 지지 및 지지 결정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할 후보/투표한 후보 • 투표 이유 • 인물만 볼 경우 투표할 후보 • 당선 가능성 • 투표 여부 • 투표 안한 이유 	0	0	0	0
일관/분할 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단위별 동일정당 후보 투표 의향/투표 정당 •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시 투표할(한) 정당 	0	0	0	0
후보지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후보 변경 여부 • 지지후보 변경 사유 • 향후 지지후보 변경 의향 • 지지후보의 출마 전후 인식변화 • 선거관세 변화가능성에 대한 전망 • 당선자의 업무수행 전망 • 선거결과에 대한 만족도 •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여론 반영 여부 • 한나라당 승리/열린우리당 패배의 이유 	0	0	0	0
정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현직시장/도지사 시정/도정 평가 • 정당 평가 • 가장 좋아하는 정당 • 가장 싫어하는 정당 • 지역의 이익을 잘 대변하는 정당 • 국민통합을 잘 할 정당 • 이념성향과 가장 가까운 정당 	0	0	0	0

주제	질문내용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경제상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년간 지역경제 변화 인식 • 변화의 주된 동력 • 지난 4년간 다른 지역 대비 거주지역의 개선 정도 • 지난 1년간 가정살림 개선 정도 	0 0 0 0	- - -	- - -	- - -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가 향후 풀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 과제를 가장 잘 풀 정당 • 참여정부 심판론에 대한 공감도 • 지방권력 교체론에 대한 공감도 • 지역별 현안 • 문재인 수석 발언에 대한 입장 • DJ 방북의 선거영향력 평가 • 열린우리당의 싸늘이 방지 주장에 대한 공감도 	0 0 0 0 0 - - -	0 0 0 0 0 0 0 -	- - 0 0 0 - 0 -	- - - - - - 0 0
정보취득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정보를 가장 많이 취득하는 경로 • 지난 일주일 지방선거 관련 뉴스를 접한 빈도 : 텔레비전 • 지난 일주일 지방선거 관련 뉴스를 접한 빈도 : 신문 • 지난 일주일 지방선거 관련 뉴스를 접한 빈도 : 인터넷 • 선거정보를 가장 많이 취득하는 인터넷 사이트 • 선거관련 정보 중 가장 관심이 가는 내용 • 선거정보를 통한 후보에 대한 인식변화 여부 • 주로 보는 신문 	0 0 0 0 0 0 0 0	0 0 0 0 - - 0 -	- - - - - - 0 -	- - - - - - 0 -
TV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토론 시청여부 •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 -	0 0	0 0	- -
선거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관심도 • 선거에 관심이 없는 이유 	0 0	0 -	0 -	0 -

주제	질문내용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지방선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관련 진술에 대한 공감도 • 지방선거의 의미 평가 • 변화된 지방선거 제도 평가 	-	0	0	-
대선후보 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후보 지지도 • 고건씨의 향후 행보 • 정당간 변화 전망 • 대통령 선거 시 광역단체장 선거와 동일정당 투표 의사 •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에 대한 입장 	-	0	0	-
박근혜대표 피습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대표 피습에 대한 인식 • 박근혜대표 피습이 투표나 기권에 미친 영향 • 박근혜대표 피습이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	-	0	-
투표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의향 	0	0	0	-
과거투표 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총선 투표 정당 • 2002년 대선 투표 후보 • 2002년 지방선거 투표 정당 	0	-	-	-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학력 • 직업 • 소득 • 지역 • 교향 • 이념성향(5점 척도) • 이념성향(11점 척도) 	0	-	-	-